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4호 【루계 제24342호】 주체102(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랑의 선물인 미림승마구락부가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평양시교외의 넓은 부지면적에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는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승마봉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지구에 인민을 위한 승마봉사기지를 건설할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건설현장을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우리 당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대중승마봉사기지로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방대한 공사과제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끝냈으며 내각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설비, 자재보장과 원림조성을 힘있게 내밀어 승마구락부의 완공에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미림승마구락부가 완공됨으로써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말발굽소리가 높이 울려퍼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에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에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작품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진문헌들을 밝고 정중히 모시였으며 사적물전시도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 이곳을 돌아보면서 지시한대로 혁명사적교양실을 정말 잘 꾸렸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승마봉사소, 실내승마훈련장, 승마지식보급실 등 승마구락부의 여러곳에 들리시여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할데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승마구락부의 시설물들에 철저히 반영되고 모든 대상들이 당이 바라는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당의 의도에 맞게 건물외벽에 통나무를 붙이고 야외관람석과 천막휴식장의 의자, 승마대와 방향표식판도 나무를 가지고 제작설치하니 자연과 친숙하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잔디 및 토사주로, 차도로와 걸음길을 질적으로 닦았으며 인공산과 인공폭포, 인공못도 자연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안겨오게 특색있게 건설하였을뿐아니라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를 구색이 맞게 심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마련한 60여필의 말들을 기쁨속에 보시며 키큰 말들은 어른들을, 키작은 말들은 아이들을 태우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승마운동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다고, 승마운동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때나 할수 있는 운동인것만큼 승마구락부가 문을 열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마음껏 체력을 단련할수 있을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완공은 하루가 다르게 비약하고 발전하는 주체건축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대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승마구락부를 손색없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당창건기념일까지 현대적인 승마구락부를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줄것을 약속한 당의 의도가 빛나게 관철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지가 어제같은데 승마구락부가 훌륭히 완공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기에 미림승마구락부와 같은 방대한 공사를 불과 몇개월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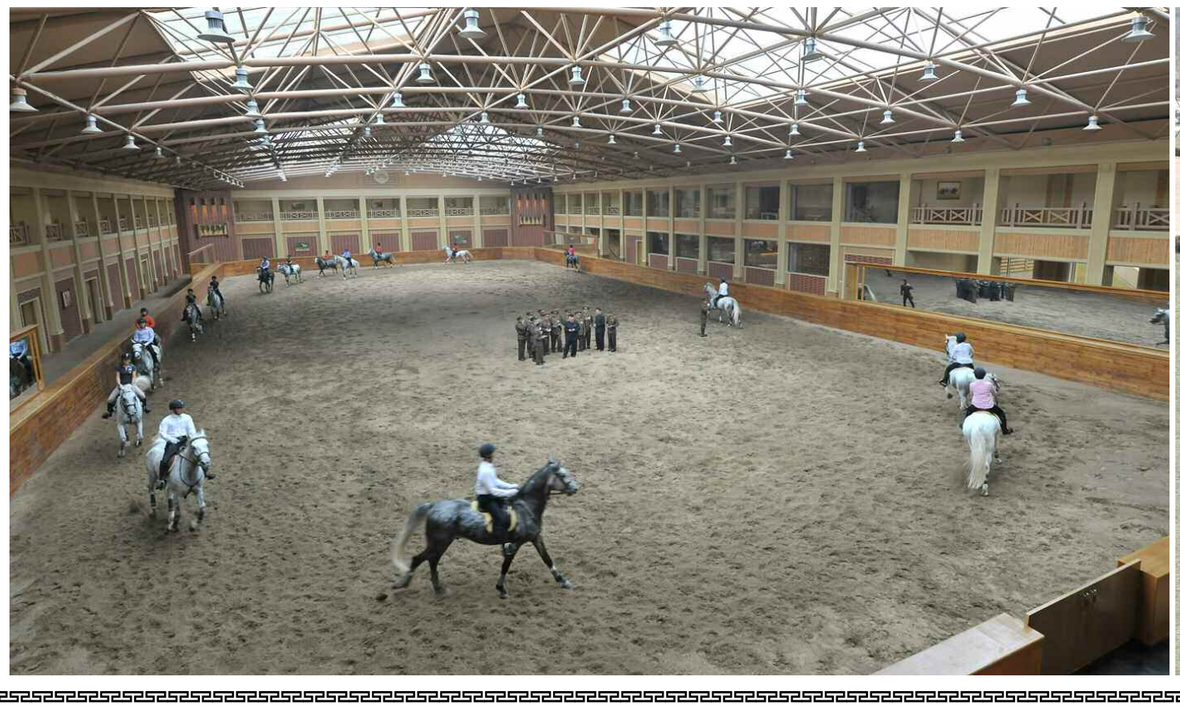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통하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최고사령관이 결심하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미더운 인민군대가 있는 한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명령지시를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행동으로 보여준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한 대중봉사시설들이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인민을 위한 이런 건축물들을 더 많이 건설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미림승마구락부의 덕을 볼수 있게 승마구락부 준공식을 하루빨리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을 보시고 기동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12일과 13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정들을 보시고 기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짧은 기간에 지능화, 경량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현대적인 전투함정들을 훌륭히 건조한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전투함정들의 기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함정들의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해군의 싸움준비완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위력한 수단들이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해군무력을 강화하고 해상작전전투능력을 부단히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참고소식》, 중국보도사, 중앙TV방송,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로씨야의 소리》방송, 타이신문 《방코크포스트》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신문, TV방송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16일 로씨야와 중국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로씨야의 소리》방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고 하면서 이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를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와 악단의 행정지배인이 맞이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관현악단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조선인민을 기쁘게 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이 나라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모신 **김정일**령도자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오래도록 보시며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마음쓰신 장군님께서 훌륭히 완공된 문수물놀이장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실내물놀이장의 각종 시설들을 정말 잘 꾸렸다고, 구석구석 흠잡을데가 없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하루빨리 준공식을 진행하여 인민들이 찾아와 마음껏 휴식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석하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하였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와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김익철동무가 사업하는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신 소식, 평양체육관에 나오시여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대성산혁명렬사릉 참관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이 20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성지를 찾은 그들은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시며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안고 만경대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들은 추녀낮은 초가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였다.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그들은 희세의 선군령장들을 모시여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올수 있었음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이어 대회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총대동지,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은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혁명선렬들의 투철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릉라인민유원지를 참관하였다.

릉라곱등어관에서 그들은 희한하게 꾸려진 공연수조와 보조수조, 과학기술지식보급실, 편의봉사시설들을 참관하고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곱등어들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들은 릉라유희장에서 수직회전그네, 튕성회전반, 우주비행반, 회전매 등 현대적인 유희기구들을 타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다.

【조선중앙통신】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질좋고 쓸모있는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한다

주타격방향을 담당한 긍지를 안고

평양화장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공업을 인민생활향상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매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며 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들끓는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을 심장깊이 새기고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이 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자재보장을 앞세워 공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이 전국의 여러곳을 다니며 부족되는 자재들을 해결해옴으로써 생산정상화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공장일군들부터가 과학연구사업의 앞장에 서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하여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산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합심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니 새 제품개발과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공장에서는 질좋은 대중소비품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록두, 알로에, 키토산을 리용한 기능성화장품과 치약들을 수많이 개발하여 생산에 받아들이고있다.

공장의 기술자들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하게 꾸려놓고 종업원들이 선진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날로 높아짐으로써 생산에서 그 생활력이 크게 나타나고있다.

공장에서는 직장, 작업반, 기대별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화장품직장, 치약직장, 비누직장을 비롯한 모든 직장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그에 맞게 공장에서는 사회주의경쟁총화도 의의있게 조직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북돋아주고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내걸고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그 과정에 종업원들을 위한 문화생활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문화회관이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완공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문화회관건설을 끝내는것과 함께 목욕탕과 리발실, 미용실과 종업원식당, 탁아소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완공단계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롱구, 배구, 정구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장건설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지금 생산은 물론 공장의 현대화와 기술혁신사업, 원림록화사업, 종업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며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 수 복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함흥목제품공장에서

함흥목제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가볍고 질이 높아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생산자대중속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자동화, 현대화하며 선진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해전 8월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꾸려진 집성재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가볍고 보기 좋은 목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현대화하며 새로운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질좋은 여러가지 목제품을 생산하는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흐름식으로 된 합판생산공정을 꾸려놓았다. 어수영, 한인철 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있는 생산공정과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새로운 설비들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실리에 맞는 합판생산공정을 갖추어놓았다. 제재종합작업반에는 원삭설비를, 가공종합작업반에는 로라풀바름기와 프레스를 설치하여놓음으로써 생산건물을 새로 짓거나 작업반을 따로 내오지 않고도 흐름식으로 된 합판생산공정을 꾸려놓게 되였다. 기술자, 로동자들은 조립식건조틀, 로라풀바름기를 기발하게 착상하고 자체로 제작하여 설치해놓았으며 비농축법에 의한 새로운 수지접착제생산방법을 받아들여 합판생산에 필요한 접착제를 자체로 만들어 쓸수 있게 해놓았다.

공장에서는 합리적인 합판생산공정을 꾸려놓은데 맞게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제품의 형태도 다양하게 개조하여 보다 가벼우면서도 맵시있고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있다.

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바킹문제를 자체로 푼것을 놓고서도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형타에 의한 바킹생산방법을 착상하고 실천에 옮겨 은이 나게 하고있다. 이 방법으로는 임의의 규격의 바킹도 형타를 조이거나 풀면서 만들수 있어 공장에서는 수십가지의 바킹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여 리용하고있다. 이들은 바킹뿐아니라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지구들도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리용하고있다. 단일체로 조립된 형타에 의한 바킹생산방법은 새 기술도입증을 받았다.

이들은 바킹뿐아니라 새로 개발한 제품생산과 여러가지 형태의 필요한 지구들도 자체로 창안제작하여 리용하고있다. 공장에는 기술부원 전영철, 생산지령원 로학철, 공무작업반장 리근, 가공종합작업반장 심명철, 로동자 유호선동무를 비롯한 창의고안명수들이 많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심장으로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맵시있고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제품의 질이 좋아 소문이 나기까지

맹산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종업원들

얼마전 맹산군을 찾았던 우리는 한 일군으로부터 군목재일용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들을수록 호기심이 동하여 우리는 서둘러 조합을 찾았다.

군소재지에 자리잡고있는 조합에서는 소문그대로 이불장, 양복장, 찬장, 밥상을 비롯한 가정용품들과 책상, 걸상 등을 손색없이 생산하고있었다.

조합은 조직된 때로부터 지난 45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으며 가구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나갔다.

목재를 가지고 인민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제품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수 있게 꾸려진 조합의 생산토대는 또 얼마나 그쯘한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부문과 단위들을 추켜세우고 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원가가 적게 들고 그 질이 높아 도에서는 물론 타고장들에서도 호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몇해전에는 질좋은 제품들을 짱짱 생산하고있는 조합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도 진행되였다. 크지 않은 단위이지만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는것이 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기풍이다.

몇해전까지만도 몇동의 단층건물들로 이루어진 조합의 생산공정은 그리 원만하지 못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관리위원장 리용남동무는 늘 어떻게 하면 조합의 생산을 더욱 활성화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뿐이였다. 그는 많은 량의 목재를 다루는 단위의 실정에 맞게 생산건물도 2층으로 증축하고 생산현장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킬 결심을 굳히였다.

당조직에서도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일군들은 조합의 건물들과 생산공정을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투쟁에로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면서 필요한 강재, 세멘트 등을 자체로 마련하며 건설을 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모두가 건설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단위들을 찾아가 건설과 관련한 기술을 배우기도 하면서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쳐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꼈다. 안영전, 리정수, 윤창모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래와 자갈을 자체로 채취하여 건설을 내밀면서 기발한 착상으로 소형기중기를 창안제작하여 공장을 2층으로 증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렇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개건공사를 끝내고 단위의 안팎을 번듯하게 일신시켰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리용남동무는 종업원들을 발동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마기, 절단기 등 설비들을 그쯘히 마련하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여러차례에 걸쳐 앞선 단위들에 기능공들을 보내여 경험과 기술을 배워오게 하는 사업도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훨씬 높아져 제품설계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흠잡을데 없게 되였다. 이와 함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지난해에만도 20여건의 새 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용남동무는 생산이 잘되는데 맞게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지금 조합의 일군들은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염소, 토끼를 많이 길러 해마다 수백kg의 고기를 생산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있으며 자체의 부업기지를 잘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올해를 떳떳이 총화할수 있게 자기앞에 맡겨진 전투과제를 매일 어김없이 집행하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신의주시초물생산협동조합에서

올해를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신의주시초물생산협동조합 일군들과 조합원들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조합에서는 초물모자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포장용바줄과 여러가지 수지단추를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력사적인 전국경공업대회의 연단에서 결의다진대로 관리위원장 차화숙동무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지난 6월말까지 년간계획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조합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작업반, 종업원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혁신의 불길은 초물작업반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작업반장 고철민동무와 작업반원들은 기술학습에 힘을 넣으면서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작업반장 신철준동무를 비롯한 바줄작업반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상반년기간에 년간계획을 끝내는데 이바지하였다. 사출작업반을 비롯한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의 생산의욕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맞게 이곳 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긍정적소행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종업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지일용품생산을 힘있게 내밀어 9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화국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경축한 긍지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현장들을 맡고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직장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은 수지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사출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찾고 사출기들을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곳 직장에서는 수지일용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지일용품생산을 1.5배이상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원료직장에서는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공장앞에 맡겨진 9월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부속품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종업원들을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보살펴주는 훌륭한 기풍

황해북도금강관리국 당위원회 일군들

내 조국의 공기가 새로와지고있다. 나날이 뜨거워지고있다. 어디서나 들려오는 인민의 목소리는 경애하는 원수님 시대에 우리 당일군들의 풍모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황해북도금강관리국 로동계급의 목소리도 그렇다.

《우리 당비서》, 《우리 부비서》, 《우리 당부원》…

지어낼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생동하고 절절한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어놓으면 황해북도금강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의 총화가 된다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 그들이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하며 자기 초소에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사업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바로 이것이 가장 훌륭한 당사업이라는것을 황해북도금강관리국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확증해주고있다.

어떤 눈이 필요한가

박성철동무가 관리국당비서로 임명되여온 3년전에 서 보자.

단위의 전반적실태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것은 생산이나 건설과 같은 행정실무적문제때문만이 아니였다.

어느날 종업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온 당비서의 얼굴색이 어두운것을 본 관리국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겠습니까. 우리 관리국은 생산단위입니다. 어디 그런데까지 눈돌릴 겨를이 있습니까. 뭐니뭐니해도 생산이 기본이지요.》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는 당비서의 마음은 피로왔다.

무엇이 첫째이고 무엇이 기본인가를 모르는 일군의 그릇된 관점때문이였다.

생산, 생산 하면서 거기에만 눈길을 돌리고있는 일군이 그 한사람뿐이 아니였다. 관리국 일군들은 물론 아래단위 일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생산단위에서 생산을 중시하는것은 물론 옳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문제, 생산과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어느 한 협의회에서 한 당비서의 말은 오늘도 일군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한다.

《우리 일군들이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광석을 보기 전에, 생산수자를 보기 전에 종업원들의 얼굴을, 그들의 생활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온 자식의 얼굴을 먼저 보고 숙제장을 봅니다. 우리 일군들이 종업원들의 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 관리국의 참된 어머니가 될 때 생산은 물론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날의 협의회는 일군들의 눈길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관리국당위원회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가면 생산수자를 묻기 전에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문제부터 알아보고 대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관리국당위원회에서는 림춘택, 유춘남동무들을 비롯한 당일군들을 아래단위에 자주 내려보내여 산하단위 당조직들에서 진행하는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대책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도 세워놓았다.

당위원회일군들의 모범은 관리국과 아래단위의 모든 일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온 관리국에 종업원들의 생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생산을 보기 전에 종업원들을 먼저 보는 눈길, 바로 그 눈길이 있어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던 종업원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가시여졌고 수많은 로동자들의 살림집이 일떠섰으며 양수설비를 잘 갖추어 먹는물문제가 해결된것을 비롯하여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에서 큰걸음을 내짚게 되였다. 그것은 그대로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관점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지붕밑에서 살자

정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끌어주면 동지가 되고 한식솔이 된다.

이것은 당위원회일군들의 좌우명이고 실천속에서 확증한 결론이기도 하다.

박성철동무는 고운 자식, 미운 자식 가르지 않는 어머니처럼 관리국의 모든 종업원들을 품에 안아 한지붕밑에서 사는 한식솔로 만드는것이 진정한 당사업이라고 늘 강조한다.

당비서사업의 첫걸음을 로동자들의 생활속에 들어가는것으로 내짚은 박성철동무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관리국안의 모든 일군들을 대중을 위해 헌신하는 참다운 복무자들로 키워나갔다.

실례들은 많다.

지난해 2월초 어느 한 공장을 지도하는 과정에 책임기사 임성국동무가 가정사정으로 하여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당비서가 그를 위해 바친 진정은 참으로 뜨거웠다.

자주 현장에 찾아가 담화를 하고 가정방문도 하면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혈육의 정으로 풀어주었으며 때로는 그를 원칙적으로 교양하고 이끌어주기도 하였다.

당비서의 뜨거운 진정은 그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그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일하였다.

그 나날에 혁신자로 자라났으며 지난해 12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광산돌격대 소대장 최승찬동무에게 어려운 공사과제를 맡겨주고 그가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도록 한 사실이며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20여년간을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일해오던 청년갱 류정인동무와 남갱 소대장 차기남동무의 순결한 량심과 성실성을 귀중히 여기고 잘 이끌어주어 혁신자로, 당원으로 키운 사실, 혁신갱 리세남동무를 뜨겁게 품어안아 믿음을 주고 정을 주어 그가 인생의 새 출발을 하고 일을 잘하여 혁신자로 자라나게 한 사실…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관리국로동자인 리은희동무가 당위원회일군들의 진정이 너무도 뜨거워 어머니당에 감사의 편지를 올렸다는 사실을 놓고보자.

2년전 리은희동무의 집에 화재가 났을 때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재난을 당한 리은희동무가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더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떨쳐나섰다.

얼마후 불탄 자리에는 본래보다 더 훌륭한 새 집이 일떠섰다. 당위원회일군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천연색텔레비죤수상기와 록화기를 비롯한 가정용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그런데 더 감동깊은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리은희동무의 어머니가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박성철동무는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눈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력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우리가 어머니구실을 하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에게 하루빨리 광명을 되찾아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영상을 뵙도록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일군들에게 이런 말을 남긴 박성철동무는 지체없이 리은희동무의 어머니를 차에 태워 중앙병원으로 보내여 광명을 되찾게 해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리은희동무의 맏아들 장세왕이 인민군대에 나갈 때에는 전사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역에까지 나가 바래주고 그가 표창휴가를 받고왔을 때에는 제일먼저 찾아와 식사도 함께 하며 기쁨을 나누었으며 떠날 때는 기념품까지 성의껏 마련해주었다.

그러니 리은희동무의 가족들이 당위원회일군들을 한식솔처럼 여긴다는 말은 결코 무리가 아니였다.

어찌 그뿐인가.

합숙생활을 하면서 안해와 떨어져살던 로동자 김경일동무에게 새 살림집을 지어주어 가정의 행복을 꽃피워준 사실, 제대군관인 손성화동무가 관리국에 배치되여왔을 때 림춘택동무를 비롯한 관리국당위원회일군들과 청년동맹일군들이 떨쳐나 살림집을 지어주고 부엌세간을 일식으로 갖추어준 이야기이며 제대군인인 경리과의 서철동무가 질병을 앓고있을 때 치료대책을 세워주고 귀중한 보약을 비롯한 영양보충에 필요한 물자를 보장해준 사실, 21살 처녀시절부터 부모잃은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우고있는 림금실동무의 가정을 한식솔로 여기고 극진히 돌봐주고있는 사실을 비롯하여 이곳 관리국당위원회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바쳐온 진정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그 과정에 당일군들과 종업원들사이에는 혈육의 정이 더욱 뜨겁게 흐르게 되였다. 말그대로 모든 종업원들이 일군들과 한지붕밑에서 사는 대가정을 이룬셈이였다.

어머니사랑엔 만족이 없다

정을 주고 또 주어도 끝이 없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관리국당위원회일군들과 행정일군들의 뜨거운 진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여 일터와 마을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다.

하지만 당비서는 여기에 만족할수 없었다.

—더 높은 요구를 끊임없이!

이것이 그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하기에 일부 일군들속에서 거둔 성과에 만족해하면서 일을 전개하지 않는 편향이 나타났을 때 그는 어떻게 말했던가.

《세상에 자식을 위한 일에 만족을 느끼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되기는 쉬워도 어머니구실을 하기란 힘들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을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것만큼 종업원들이 락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과가 클수록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당비서는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이면서 일군들을 이끌어나갔다.

끊임없이 설계하고 끊임없이 일판을 벌려나갔다. 관리국에 버섯재배장, 양어장, 태양열온실을 꾸리였으며 산하광산들에도 종업원들을 위한 후방기지를 그쯘히 갖추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관리국당위원회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하여 바친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돼지, 게사니, 닭을 비롯한 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수 있는 종합축사가 일떠섰고 버섯재배장, 메기양어장, 태양열온실이 꾸려져 은을 내게 되였다.

종업원들의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일군들은 더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며 일판을 계속 전개해나갔다.

얼마전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종업원들이 덕을 보게 하였으며 갖가지 식료가공품을 생산하는 종합가공기지도 일떠세웠다.

산하의 모든 광산들에서도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완강하게 실천하도록 이끌어주어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하고있다.

종합축사공사와 갱도식버섯재배장건설을 끝냈으며 편의봉사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한것을 비롯하여 성과는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서만도 2 000여㎡의 태양열온실 7개 호동, 3개의 광부원을 비롯한 8동의 문화후생시설, 680여㎡의 버섯재배장을 꾸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두번째의 중소형발전소건설을 작전하고 내밀고있다.

종업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의 성과는 곧 관리국의 전반사업성과를 담보하는 위력한 정치사업이였다. 모든 광산, 공장의 면모가 새롭게 일신되고 생산이 장성한것을 비롯하여 관리국전반사업에서는 전례없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그렇다. 종업원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것이 바로 당사업의 근본으로 된다는것을 이곳 당위원회사업은 실천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철 범

인민들의 웃음꽃 만발한다

사회주의부귀영화가 꽃펴날 내 조국의 래일이 보인다

◎ 문수물놀이장에서 ◎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았는가?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을 인사처럼 건넨다.

문수물놀이장에 가본 사람은 신바람이 나서 황홀하기 그지없는 물놀이장에 대해 자랑하고 가보지 못한 사람은 어서 빨리 가보리라 속다짐한다.

사회주의문명을 세상에 자랑높이 떨치며 우리 인민의 생활의 한복판에 친근하게 자리잡기 시작한 문수물놀이장,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리는 사랑의 물놀이장을 찾아 우리는 취재길을 이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특색있는 뾰트라스형식으로 지붕을 처리하여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낀듯 한 실내물놀이장으로 들어서니 그야말로 웃음의 바다, 행복의 바다였다.

곳곳에 설치된 각이한 모양의 수조들에서 출렁이는 맑은 물에 몸을 잠그고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아찔한 물미끄럼대를 타고 지쳐내리며 물놀이장이 떠나갈듯 환성을 터치는 사람들,

이 희한하고 황홀한 물놀이장의 주인은 자기들이라는듯 어른들에게 뒤질세라 물놀이에 열을 올리는 학생소년들과 유치원꼬마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탁아소나이의 어린이를 안고있는 한 녀성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대동강구역 문흥2동에서 살고있다는 그 녀성은 문수물놀이장에 어린이들을 위한 수조가 특별히 설치되였다고 하기에 자식과 함께 왔는데 이렇게 와보니 정말 희한하다고, 어머니 및 어린이수조라고 부르는 수조앞에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한수조이지만 바깥부분은 3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들이 리용할수 있게 얕고 그 안쪽은 어머니들이 리용할수 있게 수조가 깊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의 심정까지 그처럼 속속들이 헤아려주었는지. …》

고마움에 젖은 그의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해주었다.

문득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사진기를 쑥 내밀며 사진을 찍어줄수 없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함께 온 동무들인듯 한 여러명의 청년들이 희귀한 식물들을 배경으로 사진찍을 차비를 하고있었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물놀이장 여기저기에서 그림같이 아름다운 물놀이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처럼 눈부신 물놀이장을 보고만 갈수 없어 사진속에 담아가는 그 심정들이 리해되였다.

첨벙, 첨벙…

실내체육관과 운동실에서 땀을 흘린 사람들이 한껏 달아오른 몸을 식히려는듯 연방 수조에 뛰여들었다.

물놀이도 좋지만 여러가지 운동을 마음껏 할수 있는 재미 역시 류다른듯싶었다. 아니나다를가 실내체육관으로 들어서니 그곳은 그곳대로 흥성거리였다. 롱구, 배구, 바드민톤장들에서는 승부를 가르는 팀들의 치렬한 공방전이 한창이였고 실내체육관의 한쪽벽면을 차지한 벼랑타기 기재들은 또 그대로 만원이였다.

아찔한 벼랑을 톺아오르며 힘과 용맹을 키워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며 우리는 다기능화된 문수물놀이장의 운동실에도 들어가보았다.

남녀로소 누구나 즐겨 리용한다는 걷기운동기재며 청소년들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달리기운동기재들이 늘어서있는 운동실에서 류달리 눈길을 끈것은 여러명이 동시에 리용할수 있게 만들어진 운동기재였다.

《이 운동기재에도 우리 당의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훌륭한 물놀이장을 일떠세워주시고 운동기재들까지 제일 좋은것으로 갖추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희한한 물놀이장에서 근로하는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평양강철공장 로동자가 하는 말이였다.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휴식홀들과 휴식터들, 이모저모가 새롭고 흥미있는 한증방들과 리용자들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특색있는 봉사시설들…

진정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만금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가 력력히 어려오는 문수물놀이장이였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행복의 무아경에 싸인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문수물놀이장에 높이 모신 어버이장군님의 천연색석고립상이 우렷이 안겨왔다.

인민이 기뻐할 때 제일 기뻐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장군님!

어버이장군님의 이민위천의 높은 뜻을 이 땅에 꽃피우시며 장군님 사랑하신 인민의 웃음소리를 더 높이 울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가슴가득히 차올랐다.

우리의 가슴속에 아니 이 나라 인민모두의 심장속에 울리는 진정의 토로인양 귀익은 노래선률이 격정의 파도를 가르며 물놀이장에 울리고있었다.

…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글 본사기자 방성화
사진 본사기자 리진명

물놀이장의 파도

쏴— 처절썩…

파도가 쉼없이 물갈기를 날리며 밀려왔다.

고무배를 타고 파도우에서 웃음을 터치는 사람들,

파도에 몸을 맡긴채 물결을 따라 쉼없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바다에서만 볼수 있는 광경이 문수물놀이장에 펼쳐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이 마련되여있습니다.》

파도수조는 문수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즐겨찾는 곳이다. 남녀로소 할것없이 누구나 물놀이장을 찾으면 의례히 파도수조부터 찾군한다.

왜 그러지 않겠는가. 수도의 한복판에서 바다의 독특한 정취를 느끼는 쾌감이란 이루 말할수 없는것이다.

중구역 동안1동에서 사는 김유란동무는 철썩이는 파도소리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하면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파도수조를 떠나고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파도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청년들인것 같았다. 수많은 청년들이 파도수조에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속에는 표창휴가를 왔다는 한 군인도 있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무척 인상깊었다.

《저는 해군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몹시 사랑합니다. 우리 집결에 새로 생긴 이 문수물놀이장에 멋진 파도수조도 있다고 하기에 와보았는데 정말 희한합니다. 부대에 돌아가면 전우들에게 문수물놀이장자랑을 한바탕 하겠습니다. 수도의 한복판에도 철썩이는 파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는 어버이사랑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물놀이장을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이 우리의 가슴속에 세차게 파도쳐왔다.

물놀이장의 이채로움을 더해주며 쉼없이 울리는 파도소리,

끝없이 솟구치는 파도는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격정의 분출인듯싶었다.

본사기자

행복의 바다, 기쁨의 바다

《전 벌써 두번째입니다. 자꾸만 오고싶은걸 어떻게 합니까.》

야외물놀이장에서 우리와 만났던 중구역 련화1동에서 사는 한 녀성이 한 말이다. 그때 그는 고무배를 타고 물미끄럼대에서 재치있게 지쳐내리였는데 기쁨에 넘친 모습은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있었다.

그처럼 오면 떠나고싶지 않고 떠나면 다시 오고싶은 곳이 문수물놀이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누릴수 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찬 생활입니다.》

이름도 모양도 각이한 물미끄럼대들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고무배를 리용하는 물미끄럼대들도 있고 맨몸으로 내리는 물미끄럼대들도 있었는데 봉사원의 말에 의하면 손님들이 제일 즐겨 리용하는 것이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라고 한다.

쏜살같이 아래로 미끄러져내리다가는 순간에 우로 솟구치기도 하는 관성렬차식물미끄럼대를 신바람나게 지쳐내린 한 청년은 정말 기분이 상쾌하다고, 문수물놀이장에 와서 이렇게 물우에서 관성렬차를 타는 쾌감을 느낄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하였다.

볼수록 이채로운 아동물공원도 얼마나 동심에 맞게 잘 꾸려놓았는지 유치원에 다니는 딸애가 도무지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동강구역 문수3동에서 사는 김경옥녀성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런가하면 물놀이를 하러 왔다는것도 잊은듯 야외물놀이장의 여기저기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금강산의 기암절벽인듯 신통하게 형상한 절벽들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이며 인공폭포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환희로 한껏 달아오른 야외물놀이장에는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녀인들도 있었다.

야외체육장들도 사람들의 웃음소리, 응원소리로 떠들썩하였다.

모래터배구장에서 치렬하게 승부를 가르는 열띤 모습들을 바라보느라니 건설이 한창인 이곳을 찾으시여 문수물놀이장은 야외 및 실내물놀이장들과 각종 야외체육장들로 이루어진 특색있으면서도 규모가 대단히 큰 이채로운 물놀이장이라고 하시면서 완공되면 청소년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파고들었다.

참으로 곳곳마다에서 끝없이 좋아하며 기쁨을 금치 못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문수물놀이장이였다.

신현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0일 도미야마 에이꼬 중앙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신사회당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수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 울음홀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있다.

20일 남자축구 4.25팀과 경공업성팀, 홰불팀과 리명수팀, 녀자축구 4.25팀과 압록강팀, 리명수팀과 봉화산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4.25팀과 경공업성팀사이의 경기가 진행되였다.

혁명군대의 체육인답게 시작부터 경기를 잘 운영하던 4.25팀은 전반전 39분경 11번선수와 20번선수의 재치있는 2인결합으로 첫 득점을 냈다.

4.25팀 20번선수는 후반전 18분경 혼전속에 문전돌입으로 두번째 득점을 성공시킨데 이어 44분경 5번선수가 련락해준 공을 또다시 상대편꼴문에 차넣어 득점하였다.

결국 4.25팀은 경공업성팀을 3:1로 타승하였다.

홰불팀과 리명수팀사이의 경기는 치렬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량팀 선수들이 완강한 방어로부터 불의적인 공격전술 등을 잘 활용하면서 아슬아슬한 득점장면들을 펼쳐보인속에 홰불팀과 리명수팀사이의 경기는 3:2로 결속되였다.

녀자축구경기에서는 드센 공격과 대담한 중장거리차넣기를 적극 시도해온 리명수팀이 봉화산팀을 1:0으로 이겼으며 4.25팀과 압록강팀은 2:2로 비겼다.

19일에 있은 녀자축구경기에서는 묘향산팀이 만경봉팀을 2:1로, 소백수팀이 황룡산팀을 1:0으로, 갈매기팀이 청천강팀을 3:1로 이겼다.

경기는 계속된다.

우리 나라 팀 국제축구련맹 201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 획득

2013년 아시아 19살미만 녀자축구선수권대회가 10월 11일부터 중국의 남경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팀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오스트랄리아, 믄마, 중국, 남조선, 일본팀과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경기를 벌리였다.

20일에 진행된 일본팀과의 마지막경기는 0:0으로 비겼다.

우리 나라 팀은 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하고 국제축구련맹 2014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였다.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가끄쏘 쟝 클로드문화 및 예술상을 단장으로 하는 꽁고공화국 정부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만경봉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나는 그이의 로작들을 많이 읽었다.

꽁고를 비롯한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국제친선전람관, 만수대창작사 등을 참관하였으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총련체육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김로현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체육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절세의 위인, 민족의 태양이시다. 그이께서는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고마운 사람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한 전쟁로병을 위해 진정을 바치는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리종호, 김광호동지들을 비롯한 청춘거리 수영경기관 종업원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습니다. 늘 전쟁로병인 저의 시아버지의 건강과 생활에 관심을 돌리고 애로가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준 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는 저의 가정을 위해 마음쓰는 고마운 사람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청춘거리 수영경기관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선 평안남도려단의 박남철, 김영락동지들을 비롯한 많은 건설자들이 건설로 바쁜 속에서도 저의 가정을 친혈육의 정으로 적극 돌봐주고있습니다. 집에 자주 찾아와 귀한 보약들과 별식들도 안겨주며 명절날, 생일날이면 친척들보다 먼저 찾아와 축하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며 전투위훈담도 듣군 합니다.

전쟁로병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저의 시아버지와 같은 전쟁로병들이 사회적존경과 우대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며 그들처럼 전쟁로병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결심입니다.

평천구역 해운2동 윤춘숙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귀국

빠벨 오브쌴니꼬브단장 겸 수석지휘자가 인솔하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20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붉은 당기발이 펄펄 휘날리고있다. 바라볼수록 세기를 이어 주체의 기치높이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로정이 되새겨져 천만군민의 심장은 세차게 높뛴다.

우리 당이 걸어온 68년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돌이켜보는 남녘겨레들도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조선로동당을 우러르며 흠모와 칭송의 정을 터치고있다.

《자주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는 조선로동당의 높이는 바로 김정일령도자님의 정치공적의 높이이다.》

《이북은 전군이 총대로 옹위하고 전민이 심장으로 받드는 위대한 당을 가지고있기에 령토는 작아도 쇠소리나는 자주정치를 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들이 낳은 이북의 현실은 어느것이나 다 건설적위인의 손길아래 꽃펴난 현대의 신화들이다.》

…

우리가 살고있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고있지만 조선로동당처럼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존엄높고 위력한 당은 찾아볼수 없다.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수행과 혁명적당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면서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온 누리에 존엄을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불패의 위력,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며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을 높이 칭송하여 인천의 한 언론인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오랜 기간의 투쟁을 통해 민중의 절대적지지와 신뢰를 받고있으며 전당이 일심단결되고 풍부한 경험과 세련된 령도력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바로 이런 당이기에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이 물먹은 담벽처럼 련이어 무너지고 련합된 제국주의의 압살책동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만난을 헤쳐가며 언제나 성공의 탑만을 쌓아 불패의 막강한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있는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도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제자들에게 《세상에는 많은 당들이 있지만 이북의 조선로동당처럼 근로민중의 신뢰와 선망을 받는 당은 없다. 때문에 세상사람들은 조선로동당을 가장 위력한 불패의 당이라고 부르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그처럼 간고했던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조국의 자주권을 꿋꿋이 수호할수 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고 세계정치무대에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권위가 비상히 높아질수 있었다.

정녕 조선로동당의 68년력사는 주체의 기치따라 불패의 위력을 떨쳐온 승리와 영광의 68년인 동시에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일관된 인민사랑의 68년이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부산의 한 회사원은 해외려행기간에 공화국북반부의 기록영화들을 여러편 보게 되였다. 영화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당의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부르며 따르는것을 목격하게 된 그의 충격은 컸다. 인민들의 생활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세력확장과 자파의 리익을 위한 정쟁을 일삼는 당들만을 보아온 그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너무도 놀라웁고 희한한것이였다.

려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조선로동당이야말로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적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의 영화들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것은 이북민중 누구나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 그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부르고있는것일가. 그것은 바로 당정책작성에서 민중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고 사회의 모든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게 하는 정치를 펴나가기때문이다. 세상에 많은 당들이 있지만 이북의 로동당처럼 민중의 신뢰와 선망을 받는 당은 아직 없다. 때문에 오늘 세인이 조선로동당을 가장 위대한 혁명적당이라고 칭송하고있는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료들과 온 가족은 뜨거운 감동과 격정에 휩싸였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어느해외인가 서울의 연세대학교신문 《연세춘추》는 《위대한 당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 당과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가 되여 건설한 사회인것만큼 이북의 사회주의는 그토록 위력한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남의 청년들은 이북사회주의를 희망의 등대로 동경하는것이다.》라고 썼다.

남조선잡지 《말》, 《신동아》도 우리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고 인민적시책들을 찬양하는 글들을 실어 주목을 끌었다.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도봉구일대에는 《조선로동당이여, 영원토록 무궁번영하라!》 등의 글발이 씌여진 벽보가 나붙었고 부산과 목포 등지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인쇄물이 나돌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당의 참모습을 알려면 조선로동당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북민중은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 부른다.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사회성원들의 정치적생명과 삶의 보호자이고 요람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모습은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고 민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여 어머니당으로 불리우는 당은 이 세상에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라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남조선의 한 기자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이남의 뜻있는 사람들은 몸은 비록 남에 있어도 마음만은 북에 두고 산다. 그들은 북의 조선로동당이 지도리념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의 진리성에 공감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한 선군정치가 크게 성공하여 남북삼천리에 자주통일의 새봄이 올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본사기자 복은희

화를 몰아오는 입방아질

최근 남조선에서 북남관계를 주관한다고 하는 괴뢰통일부가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규탄과 충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오히려 사사건건 대답질하며 그것을 합리화해나서고있다.

통일부패거리들은 《북의 대남비방이 도를 넘는다.》고 악담질을 하면서 《5천만의 존엄》이니 뭐니 하는 덜돼먹은 수작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저들의 대결흉심을 낱낱이 파헤친 우리의 사리정연한 론거를 거들며 그 무슨 《내정간섭》이니, 《상호존중》이니, 《품격있는 언행》이니 하고 시비질하고있다. 이자들은 쩍하면 그 무슨 《성명》발표, 《기자설명회》따위의 놀음들을 벌려놓고 제편에서 《유감》이니, 《신뢰노력훼손》이니 하는 가소로운 말장난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나서고있다.

이것은 괴뢰패당이 저들의 대결소동이 빚어낸 북남관계악화에 대해 꼬물만 한 책임도 느끼지 않으면서 우리와 계속 엇서나가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통일부의 온당치 못한 처사는 대화와 협력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내외민심에 역행하는 고약한 소동으로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에게 응당 할 소리를 하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인 제의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과연 누가 망쳐놓았는가.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괴뢰당국은 우리의 대화의지를 오판하고 북남관계의 자그마한 성과들을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의 결과로, 《원칙고수》에 따른 그 누구의 《변화》로 오도하며 동족의 성의와 아량을 참을수 없이 모독하였다. 지어 북남대화의 진전을 반통일적인 《신뢰프로세스》를 실현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서 《체제통일》흉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나중에는 터무니없는 모략날조설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상전에게 빌붙어 북침핵선제공격을 노린 《맞춤형억제전략》을 채택한다, 핵항공모함을 끌어들인다 하고 분주탕을 피우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핵전쟁발발국면에로 바싹 몰아갔다. 남조선괴뢰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아량을 보이는 우리를 이처럼 마구 걸고들며 대화를 대결에 악용하고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자코 가만있을수 있겠는가.

누워서 뱉는 침은 제 이마빡에 떨어지는 법이다. 통일부패거리들이 당국자를 우리가 지명공격한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야단법석하는데 민족의 최고존엄을 그렇듯 무엄하게 헐뜯는 망동을 부린 저들의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는 왜 돌이켜보지 않는가. 그러고도 《유감》이니, 《상호존중》이니, 《품격》이니 뭐니 하고 떠벌일 체면이 있는가.

죄를 저질렀으면 성근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교훈을 찾는것이 옳은 처사이다. 문제는 괴뢰통일부패들에게 그런 용기, 다시말하여 현 북남관계의 파국을 수습하고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그들이 저들의 대결책동을 문제시하는 우리를 사사건건 걸고들며 얼토당토않은 도발적언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북남관계의 분위기를 더욱 흐려놓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준다. 괴뢰패당의 분수없는 입방아질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괴뢰통일부가 지금처럼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통일지향에 계속 역행한다면 절대로 무사할수 없다. 통일부패거리들은 입건사를 제대로 못하다가는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통채로 뒤집어쓰고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괴뢰통일부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리성적으로 처신하기를 바라고있다.

박철준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남조선의 한 주민이 법정에서 터친 웨침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6일 남조선의 한 주민이 괴뢰법정에서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구호를 웨쳐 파쑈광들을 전률케 하였다.

이날 괴뢰청주지방법원은 여러차례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운 한 주민에 대한 재판놀음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파쑈당국은 그가 2009년 7월 인터네트에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까지 수십건의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하면서 악법에 걸어 그해 5월 구속기소하였다.

그로부터 1심, 2심 등 4차례의 재판들에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자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웨치며 자기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번에도 괴뢰법원은 그가 지난 시기 북을 찬양하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리고 재판과정에 공화국 만세를 여러번 웨쳐 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하면서 원심판결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판결이 끝나자 그가 터치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웨침이 법정을 또다시 뒤흔들어놓았다.

이것은 공화국을 동경하는 남녘민심의 열렬한 지향과 대세의 흐름은 그 어떤 폭압으로써도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겨레의 통일지향에 도전하는 극악한 대결정책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단죄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의 공동주최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원칙론〉의 기만성을 까밝히다》라는 주제의 통일시국토론회가 16일 도꾜에 있는 조선출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한동성 선전문화국 국장, 서충언 국제통일국 국장, 김화효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회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박근혜와 남조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더는 용납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모처럼 대화국면에 들어선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바로 박근혜일당이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괴뢰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걸고든것은 최악의 역적행위라고 규탄하였다.

박근혜패당이 운운하는 《북붕괴론》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론》이라는것은 겨레의 통일지향에 도전하는 극악한 대결정책이며 이를 구체화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야말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반통일문서라고 폭로하였다.

괴뢰보수일당이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계획까지 짜놓고 외세와 공모하여 침략소동에 미쳐날뛰면서 통일애국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종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며 《유신》독재시대를 부활시키고있다고 지탄하였다.

박근혜패당이 민족의 지향을 가로막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매국배족행위와 반통일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간직하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남조선보수일당의 동족대결책동을 폭로분쇄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리행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진보단체를 말살하려는 파쑈당국을 규탄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15일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해고자들의 로조원자격을 박탈하도록 내부규약을 고치지 않을 경우 로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실상 로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 이러한 처사는 교원들과 민중들의 반대에 부딪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련대를 호소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4일 민주화를 위해 각계각층이 련대할것을 호소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금 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수뇌상봉담화록과 관련한 음성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날치며 선거개입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세는 모든 민주세력이 하나로 뭉쳐 범국민적련대를 형성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긴장격화를 조장하는 무력증강책동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괴뢰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는 반민족적인 대결전쟁정책을 걷어치울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운운하며 《대북억지력》이라는것을 강화하는데 달라붙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대응능력확보》의 간판밑에 적극 추진되고있는 선제타격체계인 《킬 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의 구축이다. 호전광들은 여기에만도 15조원이라는 막대한 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려 하고있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사거리가 300㎞인 탄도미싸일 《현무—2》와 장거리순항미싸일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데 이어 800㎞의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싸일과 2 500㎏가량의 폭탄을 탑재할수 있는 무인공격기를 개발하고있다. 한편 조기경보레이다와 이지스구축함,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 탄도탄작전통제소, 중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으로 구성되는 《미싸일방어체계》도입을 위해 서두르고있다. 이와 함께 괴뢰들은 2016년에 《SM—6》미싸일을 끌어들여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것을 획책하고있다. 괴뢰방위사업청은 초음속훈련기를 지하구조물과 장거리포진지, 땅크 등을 공격할수 있게 개량하여 실전배치하는 놀음도 벌리고있다.

얼마전 괴뢰들은 《공격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을 확보》한다고 떠들면서 새로운 이동형해상감시레이다를 서해 5개 섬일대에 배치하였다. 각종 어뢰와 대함미싸일을 장비한 최신잠수함을 언론에 공개하는 망동도 부리였다. 이밖에도 괴뢰군부는 다음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2% 증가한 35조 8 000억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있다.

괴뢰패당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저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무력증강책동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소동에 광분하는 괴뢰호전세력에 의해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침열에 들떠 돌아치는 괴뢰군부호전광들에게 《강토를 전쟁터로 만들 심산인가.》고 들이대면서 《무력증강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는 불보듯 뻔하다.》, 《미국과 공조하여 새 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고 한다.》고 단죄규탄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책동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공약파기《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을 선포

남조선의 국민년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민주로총을 비롯한 21개 련대기구가 16일 서울시청앞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범국민적인 반《정부》투쟁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원칙》과 《신뢰》를 정책으로 내세운 박근혜가 선거공약을 대대적으로 파기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공약의 대부분은 사회의 로동자, 청년, 로인 등 민중들과의 약속이였다고 하면서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저들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약속을 뒤집어엎은데 대해 민중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정보원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앞세워 여론조작, 공안통치를 일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최근 전교조를 시작으로 민주로조전체를 겨냥한 탄압은 박근혜《정부》가 로동의 기본권리까지 짓밟고있음을 보여준다고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약파기《정부》에 대한 범국민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앞으로의 투쟁계획이 발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정보원의 정치개입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곤두박질하는 《지지률》

정치인에 대한 지지률은 연극배우의 인기를과는 다르다. 실속이 없는 신파적인 연기로 민심을 유혹하려 들다가는 봉변을 당하기가 쉽다. 괴뢰집권자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전문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괴뢰집권자에 대한 《지지률》이 불과 20일 되나마나한 사이에 무려 11%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항간에서는 인민들을 대상으로 거짓공약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아닌보살을 하는 사기협잡기질과 정치를 제 입맛대로 칼질하는 오만과 독선이 일을 치고있다고 조소하는 말들이 나돌고있다.

우선 괴뢰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요란히 광고하였던 《기초년금제도입》공약을 줴버린것으로 하여 1등 거짓말쟁이로 락인되였다. 그는 《대통령》감투를 따내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며 민심을 살살 유혹하였다.

특히 《기초년금》문제에 관심을 두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경향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할듯이 찰떡같이 약속하였다. 그러던 그가 얼마전 《재정형편》이 어쩌니저쩌니 하면서 공약을 리행할수 없게 되였다는 나발을 태연스럽게 늘어놓았다. 지어 《기초년금》문제와 관련하여 자기와 견해가 다른 보건복지부 장관을 자진사퇴의 명목으로 쫓아버렸다.

그에 대한 사회 각계의 비난이 홍수처럼 터져나오자 괴뢰집권자는 청와대에 몇몇 로인들을 데려다놓고 《사과》니 뭐니 속에 없는 소리를 잔뜩 늘어놓았지만 행차뒤 나발이고 깨진 사발이였다. 우는 아이 엿주며 달래는 식의 그런 유치한 처사에 남조선인민들은 침을 뱉았고 민심은 거침없이 떠나갔다. 집권기간 《선거공약》이란 공약은 모두 하늘로 날려보내여 거짓말쟁이로 소문난 리명박역도도 그토록 짧은 기간에 이런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다는것이 여론의 비난이다.

현 괴뢰집권자는 《인사》문제를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민심의 목소리에는 귀를 틀어막고 주관과 독단을 부려 《천하의 고집불통》으로 소문났다. 또한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목떼기를 하여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괴뢰검찰총장 채동욱의 사퇴도 그 한 실례이다. 하루가 멀다하게 터져나오는 권력층인물들의 사퇴소동으로 인한 일대 정치적혼란의 수렁창속에서 남조선사회전체가 신음하고있다.

여기에다 최근 현 집권자가 2009년에 있은 비극적인 《룡산참사》의 주범인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를 요직에 등용하고 부정부패경력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 《한나라당》대표 서청원을 다가오는 보충《선거》의 《국회》의원후보로 내세운것으로 하여 사회는 더욱 소란해지고있다. 더우기 괴뢰집권자는 악질적인 《유신》잔당들과 친일파, 《뉴라이트》계의 극우보수분자들로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어 각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원래 현 괴뢰집권자는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되여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김용준이라는 늙다리를 총리후보자로, 미중앙정보국의 간첩노릇을 하던 김종훈이라는자를 장관후보로 내세웠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었다. 또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기암거래장사군으로 유명한 김병관이라는자를 국방부장관후보로 내세우고 무려 38일동안 버티기를 하여 《불통》의 전형으로 락인찍히였다. 자기의 독선적인 《인사》방식에 대해 반성할 대신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그것을 보고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지률하락의 비밀》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바보인줄 아는가. 털어서 나오는 작은 먼지정도가 아니라 먼지가 막 뭉쳐서 굴러다니는 지경이다.》라고 조소를 퍼부었다.

괴뢰집권자가 민심의 지향과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사기정치, 협잡정치에 매달리고 오만과 독선을 부리며 독재통치에 나서는데 이런 꼴사나운 인물을 누가 좋다고 반기겠는가.

문제는 현 괴뢰집권자의 《지지률》폭락이 심상치 않은 사태를 예고해주고있다는데 있다. 괴뢰집권자의 전횡으로 사회가 과거의 독재시대에로 뒤걸음치고있는 지금 남조선항간에서는 1979년 10월 부산시민들이 《유신》의 밑뿌리를 뒤흔들었듯이 제2의 부마항쟁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박근혜시계》를 멈춰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돌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

동족대결의 기도를 드러낸 서푼짜리 각본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괴뢰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라는것을 열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이 담겨진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괴뢰통일부 장관이 5년에 한번씩 수립하도록 되여있다. 로무현《정부》시기인 2007년 11월에 수립되였던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2012년말에 효력이 끝났다. 당시 집권말기였던 리명박역적패당은 저들이 하기로 되여있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작성을 시작조차 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켰다. 이로써 역적패당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형식상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마저 외면하고 북남관계파국의 지속과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악랄한 흉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문제는 이번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는 현 괴뢰집권세력이 리명박패당에 결코 짝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그것은 이번 계획의 대결적내용이 잘 말해주고있다.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남북관계의 전망목표》가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로 되여있었다면 이번에는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으로 그 냄새가 확연히 다르게 바뀌여졌다. 우리 공화국의 《선핵포기》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추구하는 괴뢰패당의 흉계가 여기에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괴뢰패당은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적추진》이란 《대화있는 대결》을 의미한다. 그 누구의 《변화유도》라는것도 《체제통일》야망의 발로로서 북남관계파국을 초래하게 된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이로써 괴뢰들은 북남사이의 진정한 관계발전과 평화, 통일이 아니라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평화체제추진 등 10.4선언에 반영된 주요내용들이 모두 빠진것이다. 이것은 현 괴뢰당국이 10.4선언의 폐기를 작정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작성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한 10.4선언을 리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한것으로서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또 하나의 재앙거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와 평화체제추진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악랄하게 반대하던 리명박역적패당의 반통일망동에 의해 지금껏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남조선 각계는 북남사이의 긴장이 가장 첨예한 서해 5개 섬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수 있는 가장 옳바른 방도는 10.4선언에 밝혀진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에 적극 나설것을 일관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 괴뢰집권세력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이번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를 완전히 줴버리고말았다.

현 괴뢰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적이 있다. 하지만 지어먹은 마음 사흘못 간다고 이제는 그 기만적광고마저 내리운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선언들에는 최악의 긴장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방도가 다 들어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의 초석이다.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이다.

괴뢰집권세력은 지금 쩍하면 그 무슨 《신뢰》를 운운하고있다. 하지만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채택된 10.4선언까지 서슴없이 짓밟는자들의 《신뢰》타령을 곧이 믿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이런 극악한 대결각본을 꾸며내고도 괴뢰패당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저들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작성된것이라고 광고하면서 《진정성》이니, 《호응》이니 하는 가소로운 수작을 늘어놓았다. 괴뢰들은 그따위 궤변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그것을 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저들의 반통일적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최근 괴뢰보수패당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소란을 피우는것은 10.4선언에 대한 그들의 거부감과 부정적태도를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로무현《정권》이 2007년 북남수뇌상봉담화록초안을 삭제하였다는 검찰수사결과라는것이 발표되자마자 그 무슨 《북방한계선포기》와 《저자세》내용이 들어간 담화록의 《수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성자료까지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정계를 극도의 혼란과 끝없는 정쟁의 란장판으로 만들고있다. 북남관계에서 가장 신성시되여야 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야욕실현에 악용하는자들이 10.4선언을 존중하며 그 리행에 나설리 만무하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거부하는것은 용납 못할 반통일역적행위이다. 괴뢰들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은 한마디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말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여달리기 위한 철저한 반통일문서, 체제대결각본외 다른것이 아니다.

최근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대화가 중단되고 북남관계가 또다시 파국의 일로를 걷고있는것도 북남선언들을 아니꼽게 대하는 괴뢰패당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가 몰아온 필연적후과이다. 괴뢰들이 《내란음모사건》따위의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는것도 북남선언들의 존중과 리행을 주장하고 련북통일을 요구하는 각계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안중에도 없이 불신과 대결, 북침전쟁도발만을 꾀하는 대결광신자들이 날치는 한 북남대화의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으며 온 민족이 순간도 편안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선언들을 외면하며 말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시도를 절대로 용납치 말아야 한다.

우리는 북남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갈것이며 거기에서 탈선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본사기자 허영민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인민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파키스탄, 브라질에서 7일과 9일에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들에는 벌가리아사회주의당, 반파쑈동맹,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파키스탄로조련맹,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브라질 브라질리아시에 있는 따파띵과 쥬쎌리누 꾸비체끼전문학교 등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조선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면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진보적인류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이 앞으로도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라호르지부 서기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에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당안에 하나의 사상과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분파나 파쟁이라는것을 모른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조선인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브라질 브라질리아시에 있는 따파띵과 쥬쎌리누 꾸비체끼전문학교 교장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였다.

벌가리아,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웨리예, 기네, 타이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스웨리예의 공산당,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주체사상연구소조, 기네예술대학, 타이 마리너즈선박무역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강성대국의 불보라》, 《당창건기념탑》이 상영되였다.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있다.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조선로동당은 미국의 항시적인 전쟁위협과 제재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면서 무료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도록 하였으며 조선을 세금없는 나라로 전변시켰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극단적인 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나라가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던 시기에도 중단없이 실시되였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김정은동지를 모시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으로서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기네예술대학 미술학부 학부장은 조선로동당의 백승의 비결은 지도사상과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타이 마리너즈선박무역회사 사장은 우리 당을 력사의 온갖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흔들림이 없이 자주적대가 강한 당,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수도 없이 사회주의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위력한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필승불패의 위용을 떨칠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 *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업적토론회, 로작해설모임과 강연회, 도서, 사진전시회가 9일 이딸리아 로마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행사장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인민의 경제강국건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공산주의자당, 좌익인민공산주의자당, 공산주의청년전선,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이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련대성협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는 토론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독창적인 당창건방침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렬거하였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하면서 그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딸리아공산주의자당 로마시 싼죠반니구역위원회 부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에 대한 해설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조선로동당을 철두철미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더욱 강화해나가실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하여온 력사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건설과 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로동계급의 당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이딸리아좌익인민공산주의자당 청년부장인 공산주의청년전선 전국조정자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우리 나라 방문인상을 피력하면서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에 감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얼마전 도꾜의 국립공문서관이 과거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립증해주는 문서를 공개하였다. 《BC급 바타비아 재판 제106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 장교 5명을 재판한 과정과 범죄자들의 진술내용이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1944년 일제는 인도네시아의 쟈바섬에서 수십명의 네데를란드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당시 범죄에 가담한 일본륙군중장이란자도 녀성들의 성노예생활이 강제에 의한것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일제의 성노예범죄가 정부와 군부의 관여밑에 강제성을 띠고 감행되였다는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과거 일본정부가 성노예제도의 조직자, 실행자였다는 자료가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전에 일본방위성과 외무성문서고에서 나왔으며 우리 나라와 중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도 발굴되였다. 일제의 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사실자료는 수다하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만도 20만명의 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였다. 일제의 성노예제도가 특대형반인륜적범죄라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할수 없는 력사의 진실이다.

오늘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범죄를 두고 치를 떨며 일본을 그처럼 혐오스럽게 대하는것은 그것이 강제적이며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감행된 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많은 나라들, 지어 동맹국들에서까지 성노예범죄가 문제시되면 일본은 제편에서 억울함을 표시하며 기를 쓰고 그를 부인하고 정당화해왔다. 처음에는 모르는것처럼 시치미를 떼다가 증거자료가 나오자 《유감》이니 뭐니 하며 사죄하는척 하다가는 다시 《증거부족》이니 뭐니 하고 말바꾸기를 하며 국제사회를 우롱하여왔다. 국제적으로 비난이 높아지고 압력이 강화되자 《국민기금》이라는것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몇푼의 돈을 던져주는것으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 하였다. 력사교과서들에서 성노예범죄내용들을 삭제하는 놀음도 벌리였다. 지어 상전의 나라 곳곳에 세워진 일본군《위안부》추모비들을 철거시키기 위해 돈까지 뿌려가며 흥정을 벌리는 너절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의 성노예범죄부정행위는 최근시기에 들어와 도를 넘고있다. 일본집권자는 국회마당에서 공공연히 《구일본군이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다른 우익보수정객들도 저저마다 나서서 당시 《위안부》제도는 필요하였다, 군대와 매춘은 붙어다니는 법이다는 소리들을 마구 줴쳐댔다. 지어 녀성각료의 입에서까지 《위안부제도가 전시에는 합법적인것》이였다는 피이한 궤변이 흘러나왔다. 일본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이 성노예범죄행위를 기를 쓰고 부정하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어떻게 하나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범죄사실을 덮어버림으로써 그에 대한 국가적배상을 회피하자는것이다. 세계는 이것을 놓고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특유의 고질적악습과 교활성을 다시한번 느끼고있다.

인류력사가 시작된이래 일본처럼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력사는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일본이 그 어떠한 권모술수를 다 써도 성노예범죄는 사실대로 남아있기마련이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범국이다. 전범국이 피해국에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은 국제법상으로 보나 인륜도덕적견지에서 보나 회피할수 없는 국가적책임이고 도덕적의무이다.

국제사회가 일제의 죄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것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피해국들에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것이다. 일본에 있어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일본이 력사의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비렬하게 놀아댄다면 죄는 더 커질것이며 국제사회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리 학 남

중국신문 우리 나라 칠보산을 소개

중국의 《환구시보》 16일부가 《일곱가지 보물이 많은 조선의 칠보산》이라는 제목으로 평양주재 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조선의 함경북도 동해안에 위치하고있는 칠보산은 경치가 아름답고 기암이 많은것으로 조선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고 지적하였다.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 3개 구역으로 나뉘여져있는 칠보산은 매 산봉우리와 나무 한그루, 해안도 다 조선의 명산 금강산처럼 아름답기때문에 일명 《함북금강》으로 불리우고있다고 신문은 전하였다.

신문은 칠보산의 일만경치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풍치가 수려한것으로 하여 칠보산으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엔총회 제68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 연설

우리 나라 대표가 17일 유엔총회 제68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공보관련문제》토의시 연설하였다.

그는 공보사업은 평화와 안전, 사회적단합과 지속개발을 추동하는 힘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오늘날 국제공보분야에서 인류공동의 번영과 문명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보통신기술과 수단들이 여전히 일부 특정한 나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있고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격차가 커가고있는데 대해 렬거하였다.

불공정한 현 국제공보질서가 지속되는 한 국제관계에서의 정의와 평등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유엔의 공보활동에 다음과 같은 주목이 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로,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공정성과 객관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제공보통신질서를 수립하는 문제가 우선시되여야 할것이다.

《공보의 자유로운 전파》에 대해 떠들면서 발전도상나라들에 저들의 의사와 요구를 강요하며 정의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특정세력들의 강권행위를 종식시켜야 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공보량에서의 편중과 불균형, 공보내용에서의 일면성과 선택성, 공보구조에서의 지배와 종속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여야 한다.

둘째로, 발전도상나라들의 공보통신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중시되여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발전된 나라들이 부당한 조건부를 걸고 국제적인 공보 및 통신기술분야에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여야 한다.

또한 유엔기구들과 발전된 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공보하부구조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제기하고 최신정보통신기술이전과 투자, 전문가양성 등 국제적협조를 강화하여 공보통신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세계적추이에 맞게 현대적인 이동통신개발과 도입을 통하여 하부구조를 완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민족공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국제공보질서를 수립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단합과 지속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적노력에 적극 합류해나갈것이다.

사회안전사업을 개선할것을 호소

메히꼬대통령 엔리께 뻬냐 니에또가 15일 한 연단에서 연설하면서 사회안전사업을 개선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아직까지도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주민들의 주요 근심거리의 하나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모든 정부기관들이 범죄방지투쟁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경찰들의 사업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그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

우크라이나대통령 윅또르 야누꼬비치가 16일 한 담화석상에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다그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농촌마을들에 현대적인 살림집과 도로들을 건설하며 하부구조건설에 대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농촌지역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하고 나라의 수출을 늘이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농촌지역들에 활력을 부어주기 위한 국가계획수행에서 정부기관들이 최선을 다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의 평화적핵활동 지지

알제리민족인민회의 의장이 13일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담화석상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특정한 핵기술을 독점하는것은 불공평하며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알제리는 핵기술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이란인민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중기준책동 단죄

짐바브웨사법, 법률 및 국회문제상이 10일 한 연설에서 아프리카나라들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그는 이 재판소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을 굴욕적으로 대하고 대륙에서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그것을 걸고 아프리카나라 지도자들을 법정에 끌어내려고 하는 등 갖은 전횡을 부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 재판소는 이라크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영국에는 관용을 보이고 아프리카나라들을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자기의 불공정성을 드러내보였다고 그는 까밝혔다.

요르단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 규탄

요르단종교상이 14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극단적인 유태인들이 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요르단정부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사원안에 이스라엘기발을 올리는것은 이슬람교도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발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동체가 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과 기타 다른 성지들을 반대하는 조치들을 철회하도록 이스라엘당국에 압력을 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확대

필리핀에서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7일 이 나라 정부는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가 각각 161명, 375명으로 늘어나고 행방불명자수는 2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리재민수는 34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새 고속도로 건설

중국 운남성에서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

9일 성에서는 총길이가 약 79㎞에 달하는 쇠룡사—몽자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성의 교통운수조건이 훨씬 개선되게 되였다.

새로운 생명체 발견

로씨야과학자들이 최근 꾸릴렬도와 깜챠뜨까반도사이의 3 000m이상 되는 바다밑에서 종전에 알려지지 않은 수백종의 생명체들을 발견하였다.

그중 절반이상이 새로운 약을 만드는데 리용될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다.

16일 《로씨야의 소리》방송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흡연통제노력

르완다에서 담배통제법안을 작성하고있다.

법안은 흡연의 해독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담배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담배를 많이 재배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현재 전체 암환자의 30%가 흡연으로 발생하고있다 한다.

16일 르완다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목화생산목표

짐바브웨에서 2013—2014 목화재배계절에 25만t의 목화를 생산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지금 20여만세대의 주민들이 목화생산에 종사하고있다 한다.

녀성들에 대한 교육사업 중시

에티오피아에서 녀성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녀성들의 수가 약 1만 6 000명에 이르렀다.

현재 소녀들의 입학률은 92.1%에 달하고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이란에서 풍력발전소건설

오늘의 세계

과학기술발전에 모를 박고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9차 집체학습이 진행되였다. 습근평총서기의 참가밑에 진행된 집체학습에서는 과학기술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집체학습을 사회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민족이 흥하고 나라가 강해진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발전을 기본추동력으로 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다.

중국이 창건된 후 지난 60여년간 중국당과 정부는 국가발전의 매 시기마다 과학기술발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꾸준히 이끌어왔다.

오늘 날로 높아가는 중국의 국력은 과학기술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난해에 진행된 당 제18차 대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사업이 사회생산력과 종합적국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지탱점으로서 반드시 국가발전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야 한다는 문제가 강조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국내외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가발전이 과학기술에 의해 좌우된다는 립장에서 내린 중대한 결론이다.

과학기술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강자가 되고 과학기술에서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는것이 현실이다.

중국당과 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과학기술제도개혁을 다그치며 혁신, 추동, 발전을 구속하는 모든 관념과 제도적장애를 제거하는것을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이번 집체학습에서는 5가지 과업이 제시되였다. 과학기술혁신과 경제 및 사회발전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인재발전제도를 완성하는데 힘을 넣는것, 훌륭한 정책적환경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개방 및 협조를 확대해나가는것 등은 국력을 높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이라고 강조되였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중국당과 정부가 특별히 중시하는것은 인재육성이다.

과학기술발전의 근본담보는 인재육성에 달려있다. 아무리 자금이 많고 자연부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인재자원이 부족하면 국력이 약해지고 순간에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나게 된다는것은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중국에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현시기 량적으로 늘어난 인재대오의 질적수준을 높이며 인재육성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까운 년간에 세계적인 인재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있다.

교육사업에 당적, 국가적힘을 넣고있다.

중국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최근 국가과학기술교육지도소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연설하면서 교육 및 과학기술을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위치에 놓고 이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며 이 두가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나라의 재부를 창조하는 능력을 높이고 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베이징에서는 중앙민족대학 부속중학교창립 100돐 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중앙민족대학 부속중학교의 전신은 내몽골—티베트학교로서 1913년에 창립되였다고 한다. 지난 기간 이 학교는 공화국창건후 소수민족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단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학교로 인정되고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전국의 20여개 성에서 온 소수민족학생 1 800명이 공부하고있다.

이에 앞서 국무원부총리가 료녕성을 시찰하였다. 그는 성안의 직업학교와 대학, 전문학교들을 돌아보면서 현대직업교육을 다그쳐 발전시키고 고등교육개혁을 심화시키는것이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의 혁신, 인민생활개선에 맞는 현실적요구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과학기술과 인재교육을 중시하고 그에 의거하여 민족부흥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려고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영희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로씨야의 쏘치에서 열리게 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번 대회는 2014년 2월 7일에 개막되게 된다.

지난 6일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서는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의 시작을 선포하는 행사가 진행되였다. 그리스에서 점화된 쏘치겨울철올림픽봉화가 로씨야에 넘겨져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하였다.

올림픽봉화이어달리기의 시작을 선포한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오늘은 행성의 주요체육경기들의 상징이며 평화와 친선의 상징인 올림픽봉화가 로씨야에 도착한 즐거운 날이라고 하면서 봉화이어달리기는 로씨야를 세계에 보여주는 보기 드문 행사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올림픽봉화는 1만 4 000명의 봉화계주자들에 의해 로씨야의 전 지역을 거쳐 2014년 2월 7일 쏘치에 도착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는 올림픽대회력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올랐던 봉화로 올림픽대회를 특색있게 개막하려 하고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초에 올림픽대회상징인 봉화는 우주비행선 《쏘유즈》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하며 그 정거장에서 우주공간을 돈 후 지구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로씨야가 2014년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로씨야는 2014년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주최권을 따낸 후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에 큰 관심을 돌려왔다.

올해초에 진행된 《올림픽경기대회전 1년》행사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2월 7일 로씨야대통령 뿌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이 행사에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육과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정직한 경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모두를 로씨야에 초청한다.

우리모두는 자기의 꿈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현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있다. 200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경기대회를 치르려는 로씨야공민들의 념원을 지지하여주었다. 우리는 올림픽경기대회가 이 기대에 전적으로 보답하여 세계체육을 질적으로 보다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이번에 로씨야는 경기대회기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때에 응원자들이 《응원자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계획하고있다.

카드식으로 된 《응원자증명서》를 소유하면 임의의 나라에서 온 임의의 사람들이 관람표를 구입하여 해당한 경기장안에 들어갈수 있다. 결국 관람표를 얻자면 본인의 증명서만이 아니라 《응원자증명서》도 같이 지참하여야 하며 이러한 질서는 로씨야인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다같이 적용되게 된다.

지난 9월에는 쏘치에서 로씨야국제올림픽종합대학거리가 개통되였다. 3년동안 건설된 대학거리는 항구로부터 멀지 않은 도시중심부에 형성되였으며 교무행정사업과 휴식보장을 위한 청사들로 이루어졌다. 대학거리는 500명까지의 대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수 있고 년간 2 000명이 단기강습 등 각이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졸업할수 있도록 건설되였다.

개통식에 참가한 뿌찐대통령은 대학생들과 교원들앞에서 로씨야는 체육분야에서 방대하고도 중대한 계획들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사회정책의 선차적문제들중의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정기적인 체육활동에 인입시키는것이 하나의 과제로 되고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노력은 물론 능숙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로씨야에서는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대상물들의 기본건설조립작업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정부 부수상은 TV《1통로》와의 회견에서 모든 체육시설물들이 이미 최상급의 국제경기들을 치를수 있는 시험단계를 거쳤으며 로씨야체육인들뿐아니라 해외체육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지난 16일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준비위원회회의에서 뿌찐대통령은 대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마감준비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상건설을 완공하며 도시정리, 하부구조완비와 통신망구축 등을 다그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가 로씨야에서 성대히 개최될 2014년 쏘치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있다.

본사기자 신경섭

ㄱ-31164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